

# 伊藤東涯의 朝鮮研究와 『訓蒙字會』\*

宮川康子(미야가와 야스코)\*\*

1. 머리말
2. 古義堂의 小學
3. 『訓蒙字會』와 古義堂
4. 『訓蒙字會』와 『名物六帖』
5. 東涯의 朝鮮研究
6. 『朝鮮諺文字母』와 『訓蒙字會』
7. 東所가 校訂한 『朝鮮國諺文字母』
8. 『朝鮮國諺文字母』의 영향
9. 맺음말

## 1. 머리말

伊藤仁齋는 江戸時代 중기, 일본 유학계에 커다란 轉機를 가져온 학자이다. 仁齋는 京都의 町人の 아들로 태어나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학문에 뜻을 두었다. 처음에 주자학에 경도되었다가 이윽고 신경쇠약에 걸려 주자학과의 격투 끝에 理氣二元論의 형이상학적 철학을 비판하는 데 이른 仁齋는 공맹의 도를 직접 배우는 古義學을 제창하였다.

伊藤東涯는 그의 장남으로 태어나 아버지 仁齋의 학문을 계승하여 明治시대까

\* 이 논문은 2017년 12월 1~2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열린 한국경학학회·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공동개최 국제학술대회 “경학사의 시야에서 바라본 소학류(小學類) 문헌”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교토 산업대학교 문화학부 교수.

지 계속되는 古義堂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仁齋의 『論語古義』, 『孟子古義』, 『語孟字義』, 『童子問』 등 주된 저서는 모두 東涯가 교정하고 출판한 것이다. 2, 3세 때 글을 익혔고 15세 경에는 『異字同訓考』를 저술하는 등 일찌감치 俊才로 칭송된 東涯는 부친의 학문을 계승할 뿐 아니라 역사적 연구방법과 실증에 기반한 새로운 학문적 세계를 고의당에 가져왔다.

東涯의 저작은 일본에 있어 최초의 유학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古今學變』을 시작으로 현재까지도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制度通』 등의 제도사, 거기에 『名物六帖』과 『操觚字訣』 등의 어학서, 초학자를 위한 입문서 등 그 범위가 매우 다방면에 걸쳐있다. 그야말로 당대 제일의 계몽적 백과전서파라 해도 좋다.

본고에서는 古義堂의 학문에 있어서 小學의 성립과정을 개관하고, 특히 조선에서 전해진 『訓蒙字會』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名物六帖』과의 관계 및 東涯、東所의 朝鮮諺文研究와의 관계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 2. 古義堂의 小學

우선 古義堂의 小學의 特質과 그 淵源에 관해 개관해 보자.

伊藤東涯에게는 『操觚字訣』, 『名物六帖』 등 학자의 필독서로 불리는 어학서가 있다. 그러나 그 성립과정을 자세히 조사한 中村幸彦 씨에 의하면 그것은 伊藤家の 家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역시 伊藤仁齋에 그 연원이 있다고 한다. 中村 씨에 따르면 東涯가 나중에 『操觚字訣』에 통합시킨 『異字同訓考』를 編集한 것은 貞享 원년(1684)부터 3년 간, 東涯의 나이 15세 때부터 17세경의 일이지만 그 전에 仁齋는 『修辭活套』라고 하는 어학서의 집필을 기획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作文을 위한 용례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제1권: 助字·字法, 제2권: 虛字·異字同訓考, 제3권: 雋言·字解·文勢波瀾, 제4권: 熟語·用語, 제5권: 文勢波瀾·行文可法으로 각 권을 구성하고 있지만 각 권은 겨우 몇 장 밖에 되지 않는다. 그 뒤에도 元祿 9년(1696)에 仁齋는 『修辭六帖』이라고 하는 같은 형태의 초고를 작성하고 있었지만 이 또한 未定稿의 상태로 『修辭活套』에 있는

「異字同訓考」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이를 통해 생각해보면 仁齋는 東涯의 『異字同訓考』를 보고, 그 부분은 東涯에게 부탁한 것이 아닐까? 그 뒤로 仁齋의 어학연구 의지는 東涯에게 이어져 갔다.<sup>1)</sup>

그러나 원래 이들 책이 편찬된 것은 어떠한 동기에 의한 것인지, 그것이 고의당의 학문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訓詁名物의 연구 의지라고 하기보다 仁齋 古義學의 성립과정에서 학문적 필요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仁齋는 孔孟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論語』, 『孟子』 두 책의 「意味血脈」, 「意思語脈」에 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언어를 달리하고 천 년 뒤에 태어난 일본인에게 있어 그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漢語와 漢文을 習熟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그래서 고의당에서는 한문학습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궁리가 이뤄졌다.

그 하나가 譯文會이다. 그것은 다양한 시대와 문체가 다른 문장을 뽑아 우선 그것을 가나[假名]를 섞어 일본어 어순대로 쓰고, 다음에 일본어 어순으로 된 문장에 원래의 한문을 복원한다. 이를 復文이라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復文과 原文을 비교하여 틀린 부분을 수정하는 학습법이다. 이는 古義堂의 매우 초기부터 행해졌으며 仁齋·東涯 부자도 塾生들과 함께 열심히 행하였다.

또 한 가지는 仁齋와 그의 高弟들이 중심이 되어 각지에서 행해진 윤독회이다. 거기서는 『朱子語類』, 『易經』, 『近思錄』 등으로부터 『史記』, 『通鑑綱目』 등의 역사서가 읽혀졌으며, 개중에는 俗語나 日本近世語를 포함한 책들도 있었다. 東涯는 나이가 어린데도 윤독회에 참가하였다.<sup>2)</sup>

이와 같은 학습을 통해 東涯는 이후 荻生徂徠와 병칭되는 어학능력을 갖추었는데 10대의 東涯가 그 과정에서 쓴 노트의 집적이 앞에 나온 『異字同訓考』가 되었다. 그것은 仁齋나 그의 高弟들에게도 공유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스스로 학습하기 위해 이뤄진 일이지 처음부터 출판을

1) 中村幸彦, 1982 「操觚字訣の成立」 『中村幸彦全集』 11, 中央公論舎 참조.

2) 이런 輪讀會에 대해서는 當時 公家の 日記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東涯는 家庭教師로서 公家の 집에서 史書 등을 講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拙論, 2003 「世公家知識人の歴史意識: 野宮定基卿記覺書 (3)」 『京都産業大學 日本文化研究所紀要』 7·8 合併号 참조.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에는 그 즈음에 아직 『康熙字典』도 전해지지 않았고, 가난한 市井의 儒者인 仁齋나 東涯는 고가의 字典, 類書 따위를 구입하여 수중에 둘 수도 없었다. 그러나 고의당의 제자들 중에는 公家나 그들과 교제하는 유복한 町人들도 있어서 그들 또는 唐本을 취급하는 책방 등을 통해 빌리든지 하여 가능한 한 어휘와 용례를 수집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테면 類書의 원초적 작업을 스스로 실천한 것이다.

결국 東涯의 『異字同訓考』는 세월을 지나 다른 文體와 用字에 관한 抄出 노트를 통합하여 시기에 따라 여러 명칭으로 바꿨으며, 만년에는 『操觚字訣』의 구상을 하게 된다. 한편 『名物六帖』의 성립에 대해서도 사정은 같았으며, 東涯 생전에 이들 서적의 간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요컨대 東涯의 어학연구는 仁齋 古義學의 기본이 되는 한문능력의 양성과정에서 탄생하였으며 어디까지나 ‘道의 學問’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것이 결국 주위의 요청도 있어서 후학을 위한 입문서로 정리되어 간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이들 어학서가 주로 한문 작문을 위한 용례집이라는 것이다. 中村幸彦 씨는 “徂徠의 『譯筌』은 漢文和譯을 위한 것이었으나, 古義堂의 『字訣』은 그와 반대로 한문 작문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였다.<sup>3)</sup> 이런 태도는 仁齋의 『童子問』의 말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문노니, 작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말하기를, (중략) 시를 짓는 것은 진실로 가하거니와 짓지 않아도 또한 해될 것은 없다. 문장의 경우는 짓지 않을 수 없으니 언어가 아니면 뜻을 기술할 수가 없고 문장이 아니면 도를 전할 수 없다. 배우기만 하고 문장을 짓지 못하는 것은 문장을 짓되 말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問. 作文如何. 曰. (중략) 詩作之固可. 不作亦無害. 若文必不可不作. 非言無以述志. 非文無以傳道. 學而無文. 猶有而不能言.](『童子問』 下卷 第40章).” 따라서 올바른 문장을 짓기 위해 배워야 하는 것으로 司馬遷、董仲舒、劉向、班固로부터 韓愈、柳宗元、歐陽脩 등의 唐宋八大家를 거론하였지만 주목할 것은 근세의 大家로서 方孝孺、王慎中、歸有光을 거론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吳訥의 『文章弁體』, 慎蒙의 『皇明文則』도 언급하였다. 이들은 모두 東涯의 『操觚字訣』과 『名物六帖』의 인용 문헌에 보이는 것

3) 中村幸彦, 앞의 논문.

으로 고의당의 작문교육에 사용되었을 것이다. 같은 古學이라 해도 ‘文은 秦漢, 詩는 盛唐’이라고 하는 擬古文 습득에만 전념한 荻生徂徠의 古文辭學과는 크게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 仁齋는 孔孟의 古義를 추구함과 동시에 거기에 나타난 ‘孔孟의 道’를 새로이 설파하기 위한 언어를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孔孟의 道’가 고금을 관통하는 보편적인 도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 도에 대한 의론은 당시의 세계 언어인 한문으로 쓰여 세계로 통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仁齋는 생각한 것이다.

東涯의 『操觚字訣』, 『名物六帖』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생겨난 부산물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名物六帖』은 東涯가 독서 과정에서 抄出한 어휘의 집적물이다. 그 노트가 크게 팽창한 元祿 즈음부터 東涯는 후학을 위해 그것을 출판하려고 생각했으나 어디까지나 ‘道の 學問’을 주로 한 東涯는 그것은 ‘末務’라서 여가가 없다 하여 좀처럼 시행되지 못했던 듯하다. 그러나 享保 12년(1727, 東涯 58세)에는 제자인 奧田三角의 간절한 열망과 노력에 의해 器財箋 6편만 출판되었다. 게다가 東涯 사후, 寶曆 5년(1708)에는 人品箋이, 安永 6년(1778)에는 人事箋이 奧田와 東涯의 아들 東所에 의해 출판되지만 이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天文、時運、地理、宮室 4 편이 출판된 것은 幕末인 安政 6년(1859)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東涯는 어떻게 『訓蒙字會』와 만난 것일까? 그리고 그것은 東涯의 학문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名物六帖』과 東涯의 조선 연구와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려고 한다.

### 3. 『訓蒙字會』와 古義堂

『訓蒙字會』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中宗 22년(1527) 崔世珍에 의해 쓰인 한자 학습서이다. 일본에 전해진 刊本은 叡山文庫本、東京大學中央圖書館本(東中本)、尊經閣本 3종이지만 그 중에 叡山文庫本만 활자본이고 또 체제도 다른 刊本이 各頁四行、一行四字인 이른바 ‘四字類聚’ 版式임에 비해 各頁十行으로 한자가 그저 나열되어 있기는 하며, 李基文 씨는 성립 시기가 가장 오래된 초간본으

로 추정하고 있다.<sup>4)</sup> 比叡山 延曆寺에 소장되어 있는 이 叡山本에는 「天海藏書」라는 標識가 있어서 壬辰亂 즈음에 일본에 전해진 듯하다.

이에 비해 東中本과 尊經閣本은 목판본으로 ‘四字類聚’ 版式인 점 등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 목록과 범례의 순서가 역순으로 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東中本에는 ‘厚狹毛利藏’으로 되어 있어 이 또한 임진란 즈음에 전래된 것으로 사료된다. 어쨌든 이들 간본은 매우 귀중한 것으로 좀처럼 보기 힘든 희귀서이다. 이것을 伊藤東涯가 어떻게 볼 수 있었던 걸까?

古義堂文庫에 소장된 東涯의 『紀聞小牘』 29권은 東涯의 방대한 독서 노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제5권에 ‘字會上中下三卷嘉靖六年朝鮮折衝將軍副護軍崔世珍著、乙亥之秋天台山所藏本、借小河弘齋’라고 하였고, 또 『訓蒙字會』에서 어휘가 抄出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乙亥 元祿 8년(1695)에 叡山文庫本을 빌려 읽은 것이 틀림없다.<sup>5)</sup> 小河弘齋는 15세 때부터 伊藤仁齋에게 배운 最高弟의 한 사람인 小河立所의 동생으로 立所가 東涯를 친 자식처럼 사랑한 것은 『先哲叢談』의 일화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sup>6)</sup> 또한 小河家は 奥州藤原家の 혈통을 잇는 명문가이며, 公家와의 관계도 깊었다. 立所는 元祿 4년에 江戸로 나왔으나 江戸에서는 東叡山 輪王寺의 宮과 公弁 法親王의 庇護를 받았는데, 이 公弁 法親王은 元祿 6년에 天台座主였으므로 아마 東涯는 小河弘齋를 통해 叡山寺本을 빌려 볼 수 있었을 것이다. 公弁 法親王은 東涯와 거의 동시대 사람으로 寶永 6년(1709)에 板行 비용으로 金 20兩을 古義堂에 하사한 것을 통해서도 고의당과의 관계가 깊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古義堂文庫에는 이 叡山本 『訓蒙字會』의 寫本은 남아있지 않다. 대신 東涯의 아들 東所의 手澤本으로써 尊經閣本 『訓蒙字會』 사본이 남아있다. 이는 후술할 『朝鮮國諺文字母』의 교정에 東所가 사용한 것인 듯하며, 권말에 ‘寶曆十二年十二月善詔讀畢’이라고 써 있으니 東涯가 세상을 뜬 지 26년 후에 새로이 입수한 사본이다. 게다가 고의당 소장의 존경각본을 필사했다고 보여지는 사

4) 李基文, 1971 「『訓蒙字會』解題」 『東洋學叢書』 1, 檀大出版部.

5) 中村幸彦, 1982 「名物六帖の成立と刊行」 『中村幸彦全集』 11, 中央公論舍 참조.

6) 1916 『先哲叢談後編 1』, 國史研究會藏版, 51면.

본이 현재 京都大學 중앙도서관에 남아있다. 고의당 소장본과 비교하면 裝丁紙質、字體 모두 훌륭한 美本이다. 권말에는 붉은 색으로 ‘寶曆十二年十二月善詔讀畢’이라고 되어 있고, 또 본문 속에 東所가 써 넣은 것으로 보이는 붉은 글씨가 모두 그대로 적혀있다. 書寫者와 書寫 연대 모두 분명치 않으나 고의당 소장 존경각본 사본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음으로 이상의 경위를 토대로 이 두 종의 『訓蒙字會』 寫本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 4. 『訓蒙字會』와 『名物六帖』

東涯에 의해 『訓蒙字會』가 우선 名物의 어휘 수집의 재료로 쓰였음은 틀림없다. 東涯는 앞서 기술한 독서 노트 『紀聞小牘』에 『訓蒙字會』에서 抄出한 어휘를 적어 넣고, 게다가 『應氏六帖』이라는 제목을 붙인 어휘집에 다른 문헌에서 가져온 어휘와 함께 그것들을 분류하여 수록하였다. 近藤尙子の 조사에 따르면 『紀聞小牘』 제5권에는 『訓蒙字會』에서 약 90개의 어휘가 抄出되었고, 『應氏六帖』 清水本에는 57개 어휘가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sup>7)</sup> 그리고 그 어휘집의 최종 형태가 『名物六帖』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번 天理大學圖書館 소장의 『名物六帖』 刊本 및 초고의 영인판을 수록한 『(古典叢書之一)名物六帖』(1979, 朋友書店)을 통해 인용된 『訓蒙字會』의 어휘를 조사해 보니, <표 1>에 나타난 것처럼 전체적으로 84개 어휘가 수록되어 있었다. 우선 『紀聞小牘』에 수록된 어휘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을 통해 東涯가 『訓蒙字會』를 읽는 과정에서 어휘와 인용문을 동시에 抄出했다는 것과 『應氏六帖』과 『名物六帖』 등의 어휘집 편찬은 그 노트를 기초로 했으며 다시 『訓蒙字會』가 어휘 수집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님을 추측할 수 있다.

일찍이 『名物六帖』 全箋의 인용서적을 조사한 花房英樹 씨는 子部 682, 史部 351, 集部 162, 經部 122의 서명을 들었다. 따라서 이들이 “編纂을 목적으로 한

7) 近藤尙子, 1995 「成長するテキスト『應氏六帖』」 『(文化女子大學紀要) 人文・社會科學研究』 3.

결과물이 아니라 연구 도중, 독서하는 중에 메모한 것을 정리한 것”으로 “제시한 명칭과 그 인용문은 모두 동시에 채록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인용서적의 총계가 編者(東涯)의 漢籍 독서범위의 최저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게다가 “『朝鮮史略』、『三國史記』、『經國大典』、『海東諸國記』 네 책은 11종 조선서적의 일부이다. 그 가운데 經部 小學類의 『訓蒙字會』는 同類 漢籍에 뒤쳐지지 않게 이용되었다”고 한다.<sup>8)</sup> 이런 것을 고려하면 『訓蒙字會』도 어휘 수집을 위해서만 이용되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역시 東涯의 조선연구의 한 부분이 되는 자료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표 1〉 『名物六帖』에 인용된 『訓蒙字會』 어휘

『訓蒙字會』 항목	『名物六帖』 수록어휘	讀み仮名	註文 / 인용문	분류
晌	晌午	ニツチウ	正午曰一午。	天文箋
望	全昭	ジウゴヤ	一一爲望。	天文箋
望	半昭	ユミハリヅキ	一一爲茲。	天文箋
礁	礁	ウミノイハ	水底尖石船行所忌俗称暗一。	地理箋上
埠	埠頭	フナツキ	津頭互市處俗呼一一。	地理箋上
妓	彈的	シラヒヤウシ	俗呼作樂之妓曰一一。	人品箋二
優	把戲的	キャウゲンシ	優俗曰一一。曰雜劇。	人品箋二
農	佃戶	シタサク	農俗称一一。謂治人之田者。	人品箋二
梢	梢子	サホサシ	俗謂船上篙師爲一一。	人品箋三
商	貨郎兒	コマモノウリ	行者曰商、俗称一一。	人品箋三
賈	鋪家	ミセウリアキンド	坐者曰賈、俗称一一、鋪行、行家。	人品箋三
賈	鋪行	ミセウリアキンド	共見上	人品箋三
賈	行家	ミセウリアキンド	共見上	人品箋三
儉	駟儉	スワイ	儉即一一、俗称牙子、牙人。	人品箋三
儉	牙子	스ワイ	共見上	人品箋三
儉	牙人	스ワイ	共見上	人品箋三
妻	大娘子	オク	妻俗呼一一。正娘子。	人品箋四
妾	小娘子	メカケ・ソバメ	妾俗称一一。	人品箋四
妯	媒婆	ナカフトババ	媒辭俗呼男曰媒人、女曰一一、總稱中人。	人品箋四
瞽	沒眼的	メシイ	瞽俗呼一一。	人品箋四
盲	先士	ザトウ	盲或尊之曰一一。	人品箋四

8) 花房英樹, 1948 「名物六帖の引用書籍について」 『東方學報(京都)』 16.



狂	風漢	モノグレイ	狂俗呼風子、又曰一一。	人品箋四
奴	驅口	ツカヒモノ	吏語奴婢曰一一。	人品箋五
窠	俊窠子	ウカレメ	鳥巢在穴曰窠、又俗戲稱娼妓曰一一。	人品箋五
媒	媒酌	ナカタチ	見媒婆下、呼男曰媒人、女曰媒婆、總稱中人。	人品箋五
妯	中人	ナカタチ・ナカフト	同上	人品箋五
?	平巳	ダウハイ	共同上	人品箋五
墩	烟臺	ヒノミヤグラ	墩高堆也。俗呼一一、曰烟墩。	宮室箋上
墩	烟墩	ヒノミヤグラ	見上	宮室箋上
閣	街房	マチヤ	俗呼一一。	宮室箋上
鋪	舖舍	ミセ	舖俗呼一舍、又曰一行、一家。	宮室箋上
鋪	舖行	ミセ	共見上	宮室箋上
鋪	舖家	ミセ	共見上	宮室箋上
廠	廠房	フシンゴヤ	如工作廳、俗呼一一。	宮室箋下
廠	工作廳	フシンゴヤ	見上	宮室箋下
厠	淨房	カワヤ	厠俗呼一一。	宮室箋下
樞	門斗	クロロ	樞俗呼一一。	宮室箋下
櫺	窗櫺	マドノコウシ	窓間隔木俗稱一一。	宮室箋下
宇	屋邊	ノキ	宇一一也。	宮室箋下
廐	馬房	ウマヤ	廐俗呼一一。	宮室箋下
柳	馬椿	ウマツナギ	柳俗呼一一。	宮室箋下
櫪	馬槽	ウマノフネ	櫪俗呼一一。	宮室箋下
塙	塙	アツチ	一射塙也。	器財箋一
銃	火銃	テッポウ	俗呼一一。又曰銃筒。	器財箋一
銃	銃筒	テッポウ	見上	器財箋一
革+章	革+章	アヲリ	一障泥、俗呼韃頭兒、又馬護衣。	器財箋一
銜	馬銜	ハミ	一一俗呼嚼子。	器財箋一
銜	嚼子	ハミ	見上	器財箋一
鞭	馬鞭	ムチ	一一呼鞭子、又曰挽子。	器財箋一
鞭	挽手	ムチ	見上	器財箋一
棒	棒子	ヨリボウ	棒俗呼一一。	器財箋一
篙	篙	サホ	一俗呼一子。又撐子。	器財箋二
碇	碇	イカリ	碇漢人亦曰鐵猫。亦作一。	器財箋二
杵	碓搗	カラウスノキネ	杵俗稱一一。	器財箋二
鈔	鈔	フダツカヒ	一即楮貨。	器財箋二
鈔	楮貨	フダツカヒ	見上	器財箋二
篋	墨篋	スミサシ	篋俗呼一一。	器財箋二
埶	埶鍋	ル	一一燒鍊金銀器。	器財箋二
秤	等子	ハカリ	秤通作稱、俗呼秤子小曰一一。	器財箋二

衡	秤子	ハカリ	衡俗呼一一。曰秤兒。	器財箋二
衡	秤兒	ハカリ	見上	器財箋二
錘	錘兒	オモリ	錘俗呼一一。	器財箋二
棒	敲棒	ヒヤウシキ	擊析曰一一。	器財箋三
影	眞影	エガタ	影俗呼影兒、又一一。	器財箋三
影	喜身	エガタ	眞影曰一一、又曰傳神。	器財箋三
影	傳神	エガタ	見上	器財箋三
竹+隔	亮竹+隔	シヨウジ	竹障俗稱一一。	器財箋三
炭	骨董炭	カツクイスマ	木根燒者曰一一一。	器財箋四
熨	運斗	ヒノシ	熨俗呼熨斗、又一一。	器財箋五
篋	密篋子	スキクシ	篋俗稱稀篋子、一一一。	器財箋五
篋	稀篋子	トキクシ	見上	器財箋五
蕘	蕘斗	チリトリ	蕘俗呼一一。	器財箋五
粥	粥	ウスカユ	稀曰一。厚曰饘。	飲膳箋
糗	乾飯屑	ホシイイ	糗一一一。	飲膳箋
膾	打生	サシミ	俗呼一一。	飲膳箋
醅	酸醅	モロミ	俗稱醅酒。酒未濾曰一一。	飲膳箋
榜	掛榜	セイサツ	大曰榜、俗曰一一。小曰告示、又板榜。	人事箋一
榜	告示	ハットガキ	見上	人事箋一
奪	定奪	サイキヨ	一一謂裁決之意。	人事箋一
呈	呈	カキアゲ	一文帖之名。俗有咨呈、呈文之名。	人事箋三
批	批	ウラハン・オクカキ	俗呼差一。又上司以公事、題干下司文尾曰一。	人事箋三
引	引	キツテ	一文帖之名、俗稱路引、塩引。	人事二
引	路引	トヲリキツテ	共見上	人事二
引	(路) 鹽引	シホキツテ	共見上	人事二

위 표는 『訓蒙字會』에서 수록한 어휘를 일본어 표기, 『訓蒙字會』에서 인용한 문장, 『名物六帖』의 분류와 함께 나타낸 것이다. 단 「平己」에 대해서는 『訓蒙字會』에서 찾지 못하였다.

여기에서 『訓蒙字會』 이외에 주목하고 싶은 책은 『名物六帖』에 인용된 조선서적의 하나인 『慵齋叢話』이다. 채록된 명사는 「女形假面」(オンナメン)으로 인용된 문은 ‘小梅數人著女形假面’인데, 東涯의 按文은 ‘小梅는 朝鮮妓女の 이름’으로 되어 있다. 東涯의 隨筆 『秉燭譚』에는 이 책에 대한 記事가 있는데, 그에 따르면 이 『慵齋叢話』도 仁齋 생전에 小河 씨에 의해 전해진 寫本이다. 그 발문에 ‘吾座

主成文公'이라고만 되어 있고 그 이름이 없기 때문에 東涯는 著者が 『東文選』에 있는 成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享保 元年에 조선통신사로 일본에 온 成夢良에게 동생 梅宇를 통해 찾아갔을 때 『叢話』의 저자가 成侃이며, 成侃은 그의 동생임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成夢良의 族祖임을 알았다고 한다.

이 일화를 통해서도 東涯가 얼마나 열심히 조선 서적을 수집하고 그 어휘를 모으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名物六帖』에 인용된 조선 서적은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訓蒙字會』, 『東文選』, 『朝鮮史略』, 『三國史記』, 『經國大典』, 『海東諸國記』, 『懲愆錄』, 『慵齋叢話』, 『明律講解』, 『攷事撮要』 10점이다. 이들 서적은 『朝鮮官職考』나 『三韓記略』 등의 참고문헌이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선택된 어휘가 『名物六帖』에 정리되어 있다. 그 가운데 수록된 어휘수가 가장 많은 것은 『訓蒙字會』지만 이들 조선 서적에서 인용된 것을 모두 합치면 상당한 양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

이제 東涯의 조선 연구에서 『訓蒙字會』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 5. 東涯의 朝鮮研究

東涯의 朝鮮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싹텄다. 처음에는 天和 2년(1682)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왔을 때인 듯하다. 그 해 여름, 仁齋는 심한 이질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13세인 東涯가 京都에 들어간 통신사 일행을 보았는지 못 보았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仁齋의 제자인 原芸庵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통신사와 만나 볼 기회를 얻었고, 드디어 건강을 회복한 仁齋에게 통신사에 보내는 글을 대신 써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통신사와 唱和하는 모습 등은 들었을 것이다. 연표를 보아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10대의 東涯는 그 후 조선과 관계된 서적을 계속해서 필사하였다. 그 중에서도 貞享 4년(1687), 18세 때 필사한 『懲愆錄』은 天和 3년(1683)까지 일본에 간본이 전해졌다고 보이나, 貝原益軒에 의한 和刻本이 나온 것은 元祿 8년(1695)의 일이므로 당시에는 희귀한 서적이었

을 것이다. 현재 古義堂에 이 寫本은 존재하지 않으며 東涯가 이것을 필사한 경위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sup>9)</sup> 元祿 8년의 『訓蒙字會』 필사는 확실히 이와 같이 조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때 이뤄졌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거기에 주위의 이해와 협력이 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들 자료를 기초로 하여 35세 즈음에는 『三韓紀略』, 『朝鮮諺文字母』 등이 정리되고, 42세경에는 『朝鮮官職考』가 간행되었다.

그 뒤에도 조선통신사가 올 때마다 東涯는 열심히 사료를 수집했다. 正德 때에는 아마도 雨森芳洲를 통했을 것이며, 통신사에게 제공된 식단포까지 입수하였다. 게다가 享保 때에는 福山藩에 出仕한 동생 梅宇를 통해 東涯는 통신사 成夢良에게 질문할 기회를 얻었다.

그 중에는 앞에서 기술한 『慵齋叢話』와 관련된 이야기 외에 「肴多介匠」·「荷葉綠匠」 등의 어휘의 의미와 조선의 역사나 예의에 관한 질문 등도 포함되어 있어 東涯의 관심이 매우 폭넓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희귀한 서적이 있으면 謄寫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새로운 지식을 적극적으로 구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 문답에 우선하여 成夢良은 伊藤仁齋의 서적을 원했고 梅宇는 『童子問』을 보냈었다.

東涯의 조선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또 다른 하나는 雨森芳洲와의交友이다. 芳洲는 江戸의 木下順庵門에 입문하기 전에 伊藤仁齋와 직접 만난 적이 있고, 東涯와도 예전부터 알던 사이였다고 생각되는데, 江戸와 對馬를 왕복할 때 여러 번 東涯와 면담할 기회가 있었던 듯하다. 芳洲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朝鮮語를 본격적으로 배운 第一人者이고, 對馬藩儒로서 조선과의 외교에 가장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東涯는 조선의 사정 등을 芳洲로부터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sup>10)</sup> 그러나 芳洲가 對馬와 江戸를 오갔고 수차례 면담한 것 같으나 직접 조선어를 배울 기회는 좀처럼 없었던 것 같다.

東涯의 『秉燭譚』에는 芳洲와의 대화 내용을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

9) 一ノ瀬千恵子, 2007 「文祿・慶長の役の傳承に關する日朝比較研究」, 富士ゼロックス小林節太郎記念基金에 따르면 内閣文庫에 「貞享歲次丁卯季夏 伊藤長胤謹序」, 「寛政九年山科貞松院七十七歳改之」라고 한 識語가 있는 朝鮮二卷本 寫本이 있다.

10) 中村幸彦 「雨森芳洲とその交友」 『中村幸彦全集』 11 참조.

다. 壬辰亂 이전에 秀吉이 조선 국왕에게 보낸 서간을 부사 金誠一이 거부한 한 사건에 대해 芳洲에게서 들었다는 것이다.

日本の 國書에 朝鮮國王殿下로 쓰고, 方物과 來朝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 이 세 가지는 중국이 蕃國을 대하는 표현이므로 三使가 다시 고쳐주길 원했으나 허용되지 않았다. 堺의 나무에서 헛되이 세월을 보냈다. 삼사 중에 두 사신은 그대로 받아서 돌아가자고 했으나 金誠一 한 사람은 승낙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그대로 돌아갔다고 한다. 최근 대마도의 儒官 雨森芳洲 씨와 이야기했는데 이 일로 조선 사람들이 지금도 金誠一을 義烈로 칭송하고 다른 나라로 간 使節로서의 능력을 칭찬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將軍家譜』를 보니 이 서간이 수록되어 있으나 이 세 단어는 없다. 그 후, 京都五山에 있는 異國을 오간 書簡 초고를 보았는데 이 세 단어가 확실히 들어가 있으니, 雨森 씨의 말과 부합된다. 아마 『家譜』를 編集할 때 改正한 것 같다. 사람들이 무엇이든 원본을 존중하는 것도 지당한 일이다.<sup>11)</sup>

이것은 아마 東涯가 『鷄林軍記』를 집필하고 있던 즈음의 일일 것이다. 여기에 서 東涯의 역사 연구가 얼마나 고증학적인 것이었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鷄林軍記』에 대해 附言하자면, 이것은 壬辰亂을 『懲毖錄』을 기본 자료로 하고, 일본의 자료로 『將軍家譜』, 『朝鮮征伐史』, 『清正記』, 『太閤記』, 중국의 자료로 『武備志』, 『兩朝平壤錄』, 『皇明實紀』, 『甲乙剩言』, 조선의 자료로 『攷事撮要』 등 입수할 수 있는 범위의 자료에 기초하여 和文으로 기록한 역사서이다. 그 기술은 전통적인 軍記物에서 보이는 「우리 장군[我が軍]」、 「敵軍」이라고 하는 호칭이 아니라 전편에 「朝鮮軍」、 「朝鮮兵」、 「日本軍」、 「日本兵」이라고 하는 記述로 통일되어 있다. 각각의 기술 자료를 明記하고 異說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병기하는 등 객관적인 立場에서 역사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자세가 일관되어 있다. 또한 일본측 자료인 『清正記』에 대해서도 清正軍 梁山軍의 전쟁과 南原의 전투에 대해서는 “梁山이라고 하는 곳은 南原과 전혀 다른 곳이다. 南海에 梁山浦라는 곳이 있다. 그 곳의 水營일까? 이곳은 南原과 멀지 않다. 다시 고

11) 『秉燭譚』 卷1, 「天正韓使の事」. 다만 『鷄林軍記』에는 세 단어가 「閣下」、 「方物」、 「本朝」로 되어 있어 『秉燭譚』과는 차이가 있다. 現代의 研究書를 보아도 「本朝」、 「來朝」、 「入朝」로 기록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찰해야겠다”라고 하여 고증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東涯가 조선의 지리에도 밝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sup>12)</sup> 東涯의 저작은 경학에 있어서나 언어에 있어서도 모두 역사적 연구방법으로 관통하고 있음은 틀림없지만 역사 사실을 묘사한 史書로써의 저술은 이것이 유일하다. 그런 의미에서도 주목되지만 간행되지 않고 未定稿인 채로 남아 있다.

이와 같은 東涯의 조선 연구는 寶永 元年(1704)에 『三韓紀略』으로 정리되었다. 그 목차는 君長略(三國、渤海、高麗、朝鮮)、紀号略、土地略、職品略、族望略、文籍略、方諺略으로 되어 있으며, 未定稿이긴 하지만 조선의 歷史、地理、職制、族譜、書籍、言語에 걸친 小百科事典이라고 할 만한 것이 되었다. 그 가운데 職品略은 나중에 『朝鮮官職考』로 간행되었다. 그리고 文籍略에는 203冊의 書名이 들어 있다. 그 중에는 앞서 기술한 『名物六帖』에 인용되어 있는 10책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부기되어 있다. 서명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慵齋叢話』、『攷事撮要』 등에 인용되어 있으나 미처 보지 못한 책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方諺略의 언어 연구의 기초가 된 것은 『訓蒙字會』이다.

## 6. 『朝鮮諺文字母』와 『訓蒙字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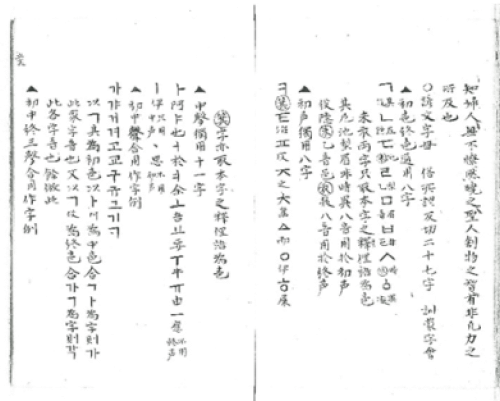
『三韓紀略』이 정리된 것은 寶永 元年(1704) 6월이지만 東涯는 같은 해 10월에 『朝鮮諺文字母』라고 하는 墨付23丁짜리 소책자를 작성하였다. 먼저 『三韓紀略』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方諺略을 보니 우선 冒頭에 『慵齋叢話』의 諺文에 대한 다음의 말을 인용하였다.

『慵齋叢話』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世宗이 諺文廳을 설치하고 申叔倫, 成三問 등에 명하여 諺文을 제작하였다. 초성과 중성에 같이 쓰이는 8자와, 초성 8자, 중성 11자는 글자체를 梵字에 따라 만든 것이다. 조선 및 여러 나라의 語音 文字로 기록할

12) 『三韓紀略』 地理略에는 朝鮮八道の 地圖가 揭載되어 있다.

수 없는 것도 모두 막힘없이 통하고, 『洪武正韻』의 글자들도 또한 모두 諺文에 따라 썼다. 그리고 五音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그것을 牙音 · 舌音 · 唇音 · 齒音 · 喉音이라 하는데, 唇音에는 輕重의 차이가 있고 舌音에는 正反之 차이가 있다. 글자에는 또한 全清 · 次清 · 全濁 · 不清 · 不濁의 차이가 있다. 무지한 아녀자들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으니, 성인께서 글자를 창제하신 지혜는 보통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미칠 수가 없다.<sup>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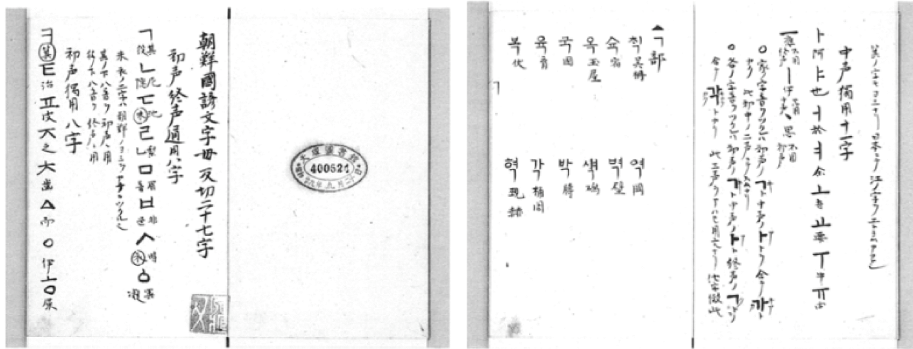
그리고 그 다음에 ‘諺文字母 俗所謂反切二十七字 訓蒙字會’라고 하여 『訓蒙字會』 범례 뒤에 있는 初聲終聲通用八字、中聲獨用十一字、初中聲合用作字例、初中終合用作字例 이하의 설명을, 諺文 부분은 언문 그대로 써 넣었다. 단 「釋」자 한 곳에만 「쓰레기[ヨミ]」라는 후리가나(振り仮名)가 붙어 있을 뿐 一字一句 틀림이 없다.



〈그림 1〉 『三韓紀略』(天理圖書館 소장)

이에 대해 『朝鮮諺文字母』에서는 初聲終聲通用八字、中聲獨用十一字、初中聲合用作字例、初中終合用作字例의 설명이 和文으로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sup>14)</sup>

13) 『慵齋叢話』 “曰、世宗設諺文廳、命申高靈、成三問等製諺文、初終聲八字、初聲八字、中聲十一字、其字體依梵字爲之、本國及諸國語音、文字所不能記者、悉通無礙、『洪武正韻』諸字、亦皆以諺文書之、遂分五音而別之、曰牙舌唇齒喉、唇音有輕重之殊、舌音有正反之別、字亦有全清次清全濁不清不濁之差、雖無知婦人、無不瞭然曉之、聖人創物之智、有非凡力之所及。”



〈그림 2〉『朝鮮諺文字母』(仁齋自筆本)

이것을 보면,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하여 “일본에서는 ‘江’자를 ‘에[え]’라고 읽는 것과 같다”라고 한 것처럼 일본어와 비슷한 예를 들어 일본의 독자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연구되어 있다. 게다가 初中聲合用作字例、初中終合用作字例는 「家」와 「各」의 음을 한 가지씩 예로 들어 간결하게 나타내었고, 그 다음의 발음과 4성의 방점에 대한 설명은 전부 삭제되어 있다.

아마도 東涯는 『三韓紀略』 方諺略에 실린 『訓蒙字會』 그대로 옮겨 써서는 일본의 독자를 위한 용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 듯하다. 그래서 새로이 『朝鮮諺文字母』의 작성에 착수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東涯는 이러한 간결한 설명 다음에 韻書의 형식에 따라 初聲終聲通用八字、中聲獨用十一字를 終音部를 만들고, 각각 初中終合用、初中聲合用的 諺文字音을 항목으로 하고, 그 다음에 同音漢字를 열거한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三韓紀略』 다음 겨우 4개월 후에 작성된 이 노트는 매우 불완전한 것으로 部를 만들었어도 初聲終聲通用八字 가운데 다섯 자, 中聲獨用十一字 가운데 아홉 자밖에 없고, 諺文字音 항목의 初聲中聲과의 결합에 따른 배열에도 규칙성이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무엇보다 수록된 한자의 수가 겨우 284자에 불과하고, 諺文字音 항목만 기록된 것이 태반이다.

이를 통해 보자면, 東涯는 漢字學習書인 『訓蒙字會』를 자료로 삼아 역으로 일

14) 伊藤東涯 자필본, 『朝鮮諺文字母』(天理大學古義堂文庫 소장).



본인이 諺文을 학습할 때 쓸 字書를 작성하려 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여기에도 『名物六帖』이나 『操觚字訣』에 보이는 用例主義에 따라 설명을 간략화하고 구체적인 한자의 자음을 표시하는 방법이 취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東涯는 이러한 구상에 따라 천천히 이 노트를 보충하고 정리해 가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 기술한 바와 같이 東涯의 小學은 讀書 연구를 하면서 자료가 모이는 성격을 지니므로 이 작업도 결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기계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東涯는 드디어 이 노트를 확충하여 정리하고 『三韓紀略』의 方諺略에 수록할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東涯의 諺文 연구는 이 이후 진전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 큰 원인이 된 것은 이듬해인 寶永 2년(1705)에 부친 仁齋가 세상을 떠난 일일 것이다. 東涯는 부친의 뒤를 이어 古義堂의 當主가 되고, 연표에 있는 것처럼 부친의 저작을 교정하고 출판하였으며, 제자를 가르치는 데 매우 분주했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孟子古義』가 출판된 것은 享保 5년(1720)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東涯의 조선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 正德 4년(1714)에는 雨森芳洲로부터 「朝鮮國諺文」이라고 하는 諺文 문자표를 빌려서 필사하였다.

따라서 『朝鮮諺文字母』에 교정이 이뤄진 것은 東涯 사후 26년이 지난 寶曆 12년(1762) 東涯의 아들 東所의 손에 의해서였다.

## 7. 東所가 校訂한 『朝鮮國諺文字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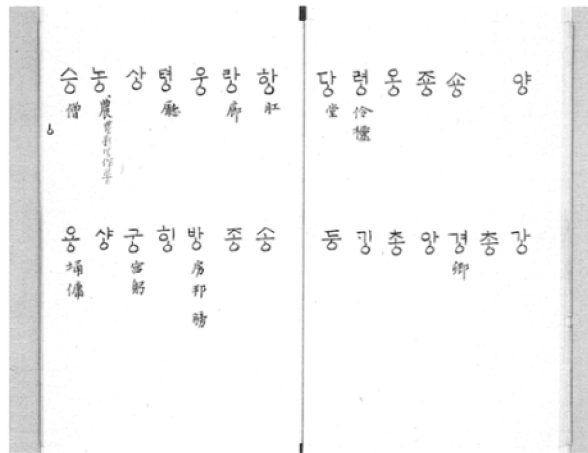
天理大學 古義堂文庫에는 東所에 의한 다음 세 가지 『朝鮮國諺文字母』본이 남아 있다.

- (a) 東涯自筆本寫本。『朝鮮國諺文字母』  
「寶永元年十月裝釘 東涯花押」 「寶曆十二年十月新謄寫 善韶」
- (b) 東所校訂本。『朝鮮國諺文字母 紹述雜抄卷之十四』  
「寶永元年十月東涯先生創草」 「寶曆十二年壬午之冬善韶補訂」  
末尾欄外「享和元年十一月二十八日校讀畢」 「二年十月二十五日照對畢」

- (c) 東所校訂本。『朝鮮國諺文字母 新校 全』  
 「寶永元年十月東涯先生創草」 「寶曆十二年壬午之冬善韶補訂」  
 「寶曆十三年癸未二月五日謄寫畢」 「明和丙戌之秋八月較正」

이 세 가지 본의 성립 과정과 그 내용을 순서에 따라 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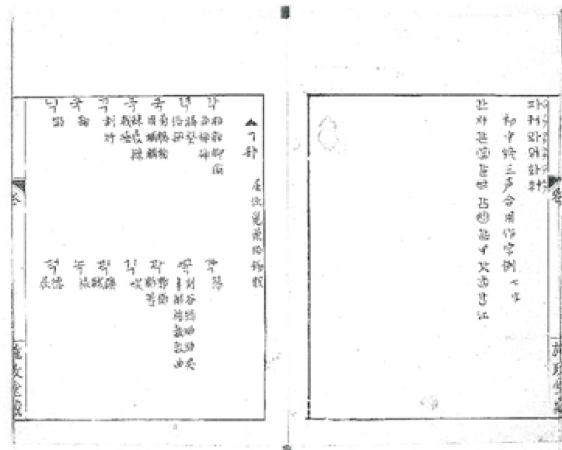
(a) 이것은 東涯 자필본에 충실한 謄寫이긴 하지만 붉은 색으로 16곳에 써 넣은 곳이 있다. 그 대부분은 諺文의 오류를 정정하는 것이나 그 가운데 4곳에 ‘新寫作’ ‘新寫不見’ 등으로 기록된 것이 있다. ‘新寫’는 ‘寶曆十二年(1762)十二月善韶讀畢’이라고 써 넣은 尊經閣本 『訓蒙字會』의 사본일 것이다. 東所는 東涯의 자필본을 교정하면서 이 新寫本을 읽어나간 것이다. 그 가운데 ‘農’字에 대해서 東所는 新寫本에 따라 ‘릉’이라고 정정했는데 叡山本과 東中本에는 분명히 ‘농’으로 되어 있으니, 東所가 잘못 본 것 같다. 古義堂 尊經閣本을 충실히 필사한 京大寫本을 보아도 이 부분은 공백으로 되어 있다. 게다가 ‘恃’、‘宜’ 두 글자에는 ‘新寫不見’이라고 하였고, 叡山文庫本에도 이 두 글자는 없다. 東涯는 어디에서 이 두 글자를 뽑은 것일까? (b), (c)에도 이 注記가 계속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東所도 그 출전을 확인하지 못한 듯하다.



(b) 그 다음에 東所는 서둘러 (a)본의 補訂에 착수하여 諺文字音 항목을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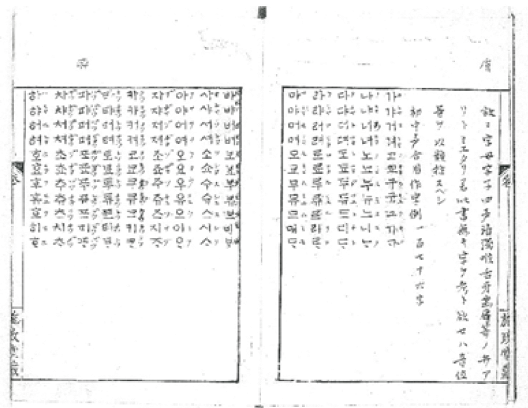
층하여 그 배열을 정리하고 각 자음 항목 아래에 동음한자를 수록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겨울에는 (b)를 정리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한자의 수는 (a)본의 284자에서 『訓蒙字會』와 거의 같은 3000자 이상이 되어 드디어 東涯가 초기에 구상한 형태를 갖추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수록된 한자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뿐만 아니라 (b)本에는 諺文의 설명부분이 한층 더 정성껏 보충되어 있다. 우선 初中終合用作字例로 「歸」、四合의 예로 「雙」이 추가되었고 字音의 발음 방법이 反切에 따라 자세히 설명되었다. 거기에 '일본의 음과 각별히 다른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 많다'고 쓰여 있는 것은 東所가 실제로 느낀 것인 듯하다. 다음으로 東涯가 생략한 『訓蒙字會』에 있는 4성의 방점 붙이는 방법을 附加한 것 외에도 正德 4년(1714)에 東涯가 雨森芳洲에게 빌려다가 필사한 「朝鮮國諺文」 初中聲合用作字例 176자의 일람표가 부기되어 있다. 이것은 『訓蒙字會』의 解說文인 「例作一百七十六字」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록되었을 것이다. 子音을 橫軸으로 하고 母音을 縱軸으로 하여 배열된 이 자음표의 배열에 따라 東所는 諺文字音 항목의 배열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 표의 가장 마지막 행의 '과'는 '과'로 잘못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유포된 字音表에 誤記가 있는 것은 古義堂版 『朝鮮諺文字母』를 베낀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b)의 교정본을 작성한 것은 아마 『訓蒙字會』 新寫本 書寫와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이 (b)本도 아직 完成稿 상태는 아니다. 欄外에는 漢字로 追加된 글씨가 있고 배열에 관한 정정도 보인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訓蒙字會」라고 써 넣은 외에 「千文」、「千文作」이라고 하여 字음을 표시한 것이 세 가지, 「日訓作」、「一作」이 세 가지 있다는 것이다. 「千文」은 아마 『千字文諺解』를 말하는 듯하다. 古義堂文庫에는 『千字文諺解』가 없지만 東所가 『千字文諺解』를 참조했을 가능성이 높다. 「日訓」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분명치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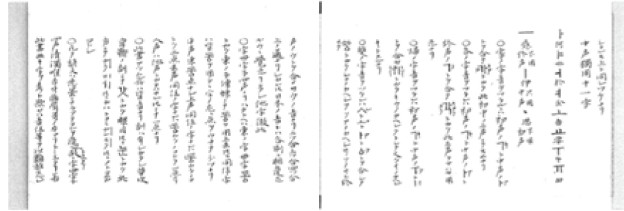
한 가지 더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되’의 항목에 「舶」자를 들어 놓은 것에 대해 붉은색으로 ‘字會恐誤之傳寫之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다. 尊經閣本 『訓蒙字會』 및 東中本の 「舶」에는 확실히 ‘피·되海中大船’이라고 되어 있고, 叡山文庫本에만 ‘빅·빅海中大船’이라고 되어 있다. 東所는 그것을 ‘傳寫之誤’라고 했지만 東所가 尊經閣本の 新寫本 뿐만 아니라 叡山文庫本 寫本도 참조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다만 이것은 尊經閣本の 것이 옳고 叡山文庫本の 것이 잘못 된 것이다.<sup>15)</sup>



(c) 이것은 아마 (b)本の 淨書本일 것이다. (b)本の 欄外 한자 및 붉은 색으

15) 2017년도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학술대회 「경학사의 시야에서 바라 본 소학류 문헌」에서 발표했을 때 權仁瀚 교수로부터 “活字本에는 誤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나온 木版本이 정확하다. 이는 東所가 오해한 것이 아니라 叡山本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도를 받았는데 謝意를 표하고 싶다.

로 정정한 부분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 字音 항목에 수록된 한자의 총수는 3,139 자이고 장정도 훌륭하며 字體도 정돈되어 세로 14cm, 가로 21cm의 橫長本이다. 東所는 이것을 전년부터의 교정이 일단 완성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듯하다.



그러나 ‘明和丙戌之秋八月較正’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明和 3년(1766)에 이미 한 차례 교정이 이뤄졌다. 淨書하고 나서 4년 뒤의 일이다. 이 시기의 정정은 한자의 오기 2곳뿐이지만 付箋을 하여 (a)本 (b)本에 ‘新寫不見’이라고 注記한 ‘恃’、‘宜’ 두 글자에 대해 “이 두 글자는 舊本에 있다. 이는 본디 『훈몽자회』에는 없으니 고찰할 만하다”라고 써있다. 「舊本」이란 (a)本과 (b)本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c)의 淨書本에는 ‘恃’、‘宜’ 두 글자가 본문에서 삭제되어 있다.



이상 古義堂文庫 所藏의 東所 교정 『朝鮮國諺文字母』 세 가지 판본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 신경이 쓰이는 것은 (b)本の 欄外에 ‘享和元年十一月二十八日校讀畢’ ‘二年十月二十五日照對畢’이라고 써있는 것이다. 享和 元年(1801)

이라고 하면 東所 73세 때, 文化 元年에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으로 東涯 사후 65년에 해당한다. 이 해 7월에는 『名物六帖』의 아직 간행되지 않은 부분을 교정한 사본을 만들고 그 冒頭에 이 사본을 기초로 하고 거기에 교정을 진행하는 수순으로 板行用 板下를 만들 때의 유의할 점 등이 지시된 付箋이 붙어있다. 아마 죽을 것을 예감한 東所는 생전에 간행하지 못한 부친 東涯의 유고를 후계자에게 부탁해야 했고 그것을 정리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을 것이다. 『名物六帖』은 그 뒤에 幕末의 安政 연간에 완성본이 나오지만, 『三韓紀略』과 『朝鮮諺文字母』는 결국 간행되지 못했다.

이와 같은 『朝鮮諺文字母』 교정본의 성립 과정을 보면 東所가 부친의 유업을 이어받아 완성시키려는 데 얼마나 열심히 몰두했는지를 알 수 있다. 東所는 겨우 7세 때 부친 東涯와 사별했다. 그런 東所의 양육과 古義堂의 경영을 맡은 것은 이미 紀州藩에서 벼슬하고 있던 東涯의 동생 蘭岫였다. 蘭岫 자신도 아버지 仁齋와 11세 때 사별하고 東涯의 薰陶 아래 성장했기 때문에 유복자인 東所를 훌륭하게 키우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아 교육했을 것이다. 그리고 東涯가 仁齋의 유고를 교정하고 간행하는 데 온 힘을 다한 것처럼 東所도 東涯의 유고 교정에 정력을 기울인 것이다. 그것이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한층 더 충실한 완성을 목표로 한 교정이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펴 본 그대로이다.

## 8. 『朝鮮國諺文字母』의 영향

江戸時代の 일본에 있어서 조선 및 조선어 연구를 말하자면 뭐라 해도 雨森芳洲가 제1인자였다. 芳洲는 조선어뿐 아니라 華語에도 정통했으며 對馬에는 조선어를 배우는 학교도 있었다. 그러한 조선문화와 풍속에 관한 이해의 깊이는 古義堂의 東涯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정치외교에 관여하는 입장에 있는 芳洲나 新井白石과 京都의 儒者였던 東涯의 연구태도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으며 그 목적도 자연히 달랐다.

계몽자이자 교육자였던 東涯의 저작은 오히려 민간에의 지지의 보급이라고 하

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東涯에게 학습한 靑木昆陽의 『昆陽漫錄』(寶曆13年)에 「朝鮮諺文」이라고 하는 한 문장이 있다. 앞서 기술한 初中聲合用作字例 176자의 일람표를 수록하고 “朝鮮諺文은 위와 같다. 쓰는 것은 朝鮮諺文字母에 자세하다”라고 쓰여 있는 것을 통해 막 완성된 東所校訂本이 어느 정도 민간에 알려져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靑木昆陽은 일본에서는 고구마 재배를 보급한 사람으로 유명하지만 그가 古義堂에서 東涯에게 학습한 학자인 것은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幕府에서 벼슬한 昆陽은 德川家 舊領의 고문서 조사에 따라 사료를 수집하고 조사하여 『諸州古文書』를 지었고, 明和 4년(1739)에는 幕府의 書物奉行이 되었다. 또한 네덜란드어를 배워 『和蘭文字略考』 등의 語學書도 저술하였다. 이것은 네덜란드어를 700단어 이상 모은 簡易辭書로 매우 초보적인 것이지만 이러한 昆陽의 사료 수집과 어휘 수집 방법은 역시 古義堂에서 배양된 것인 듯하다. 昆陽이 『朝鮮國諺文字母』에 관심을 가진 것도 당연하다 할 수 있다.

본격적인 寫本調査는 하지 않았으나 내가 아는 바로는 『朝鮮國諺文字母』의 寫本은 國會圖書館、關西大學圖書館、京都大學附屬圖書館所藏의 세 가지 판본이 있다. 『三韓紀略』 寫本에 대해서는 東京大學 3本、筑波大學 2本、京都大學、立命館大學、鹿兒島大學、高知縣立圖書館에 각각 1本씩이 확인된다. 그리고 한국의 연세대학교에도 1本이 소장되어 있고, 중국에도 전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으로 사본으로써 상당히 유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貝原益軒에 의해 간행된 『懲愆錄』 和刻本에도 東涯의 『秉燭譚』에 조선과 관련된 기사가 쓰여 있는 것이 4점 확인되고 당시의 독자가 조선에 관한 정보를 古義堂에 요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東所의 간행을 위한 노력은 이처럼 독자들의 요망에 부응한 것이기도 했다.

## 9. 맺음말

『訓蒙字會』 사본이 『名物六帖』과 『朝鮮國諺文字母』의 성립에 어떻게 관련되

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古義堂의 학문 기반과 방법을 잘 이해할 수 있다. 伊藤仁齋는 일본의 유학을 주자학적 사고의 틀에서 해방시킨 그야말로 혁명적인 사상가지만 그것이 정확한 언어의 이해와 자신의 사상을 언어화하는 作文力의 습득이라고 하는 언어연구의 위에서 성립되었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거기에는 이미 文獻、文體、語彙 등을 역사적으로 분석하는 관점이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주자의 주석을 벗어나 孔孟의 道를 추구하려고 한 仁齋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언어연구는 학문적 방법론으로는 자각되지 못했던 것 같다.

東涯는 仁齋의 사상적 혁명이 새롭게 열린 지평 속에서 그의 학문방법을 역사적, 고증학적인 것으로 발전시켜 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東涯는 仁齋의 사상을 祖述하고 더 확장시켜 나가는 데 전력을 쏟았다. 그리고 자신의 道의 학문의 總集成으로써 『古今學變』을 남겼다. 그것이 어떻게 넓은 학문적 토대를 지닌 것이었는가는 그 부산물로 생긴 小學類 저작의 성립과정에 따라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그것들은 蘭嶼、東所 및 古義堂의 제자들에 의해 계속 이어져 갔다.

주제어 : 伊藤東涯, 訓蒙字會, 名物六帖, 한국학

투고일(2018. 5. 16), 심사시작일(2018. 5. 21), 심사완료일(2018. 6. 7)



〈Abstract〉

A study on Chosŏn studies of Ito Togai(伊藤東涯) and  
Kunmojikai(訓蒙字會)

Yasuko Miyagawa \*

Ito Togai, a representative merchant scholar of Japan in the 18th century, was born as the eldest son of Ito Jinsai and succeeded and developed the philosophy of his father as the second president of “Kogido”(the school of ancient Confucianism). Although Their academic goal was to learn and practice Confucius and Mencius’ way, they also put value in language learning as the basis for studying the scripture of Confucianism.

Many text books for language studying, therefore, were produced as by-products in the process of such research.

In this paper, focusing on “Kunmojikai”(the kanji dictionary brought from Korea), I would like to clarify how it was used in “meibutsu-rikujo”(the dictionary compiled by Togai), and his Korean studies. This will bring out the methodology of Confucian studies in Kogido and their role of social enlightenment.

**Key Words** : Ito Togai(伊藤東涯), Kogido, Kunmojikai(訓蒙字會), meibutsu-rikujo, Korean studies

---

\* Professor, Faculty of Cultural Studies, Kyoto Sangyo University.